

영악한 새우



김민소장의

탕탕평평

'최저임금제'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개념적으로만 보면 전전한 제도로 보인다.

시장경제체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라는 신호에 의하여 자원배분이 결정되는 경제체제이다. 시장의 가격 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은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을 제고 시킨다. 따라서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배제된다. 그러나 '시장실패'를 보완하거나 분배의 형평성(equity)을 제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야 하는 경우인지는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유난히 높다. 통계상으로만 600만이 넘는 인구가 자영업에 존재한다. 결코 적잖은 비율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함으로 그 수혜자인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 등 고용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수혜의 결

과와 그것을 부담스럽게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파장 또한 양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장사도 안 되는데 정해진 임금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세상인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부담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은 자꾸 폐업을 하게 되고, 서민경제에 현금의 흐름이 차단되는 일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의 생계를 위해 고용주인 자영업자들이 사업장의 문을 닫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내수시장의 경기 악화로 거시적인 국가차원에서 보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나. 경제야말로 단순한 선심성 정책보다는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해 온 대한민국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미국 정부와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 '자국보호주의'라는 슬로건에 입각해 한반도를 상대로 경제적 보복조치인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상황이다.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가장 큰 시장이었던 미국에 당장 수출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다. 한미FTA 2차 협상도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국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국민의 신변보호와 경제적 생존권은 보장

해야만 국민은 국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미동맹도 이전 같지 않고, FTA체결 국가인 한반도에 무역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미국이다. 그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잘못된 이데올로기 의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편을 갈라 척을 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분단에 휴전 중인 평범치 않은 국가의 스텐스와 신흥강대국인 중국과는 경제적 교역, 한미동맹을 지속해 온 미국과는 이전 정도로만 긴밀한 공동대응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미·중 간의 패권다툼에 최소한 피해국만 되지 않으면 한다.

여발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두 고래를 적절히 견제시킴과 동시에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줄 알았으면 한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부적으로 국내 정치는 수준 낮은 패권정치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이다. 국가와 정치를 위해 우리 국민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있기에 국가라는 제도가 있고 그 국가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대한민국이기를 바란다.

/데일리풀리 정책연구소장



주금공, 미래 혁신전략 워크숍 개최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부산에서 미래 혁신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선 공사 맞춤형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원부 동국대 교수의 '스마트 디지털 시대의 미래 주택금융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이번 워크숍에서 미래 신성장동력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당부하고 있다.

/주금공



삼양그룹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행사 진행

삼양그룹은 4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행사에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 7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행사는 설 연휴 일주일 전 쌀, 비누, 설탕 등 생활필수품과 이불을 담은 나눔보따리를 자원봉사자들이 훌로 사는 어르신에게 배달하는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멘토링 활동 중인 선후배, 신입사원 동기, 임직원 가족 등이 다수 참여해 이웃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삼양그룹

! 궂은 날에도 친구가 되기 위한 힌트

자 : 2018년 2월 6일(금) 장소 : 서울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



기보-여성지원센터-기업銀, 유망 女중기 지원 MOU

행과 지난 2일 서울시 강남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여성기업 성장 및 좋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IBK기업은행 김도진 행장(왼쪽부터),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한무경, 기술보증기금 김규록 이사장이 포즈를 취했다.



주택가구협동조합, 소외계층 위해 중기사랑나눔재단에 쌀 기부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은 소외계층을 위해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660만원 상당의 쌀 2920kg을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주택가구협동조합은 지난해에도 3월과 5월에 총 5400kg의 쌀을 후원한 바 있다. 조합은 오는 5월9일 '가구인의 날'에도 쌀을 기부할 계획이다. 주택가구협동조합 이기덕 이사장(왼쪽)과 중기중앙회 박영각 공동사업단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티웨이항공, 광명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 지속 증대

티웨이항공은 지난 1월 17일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 수속과 수하물 탁송, 출국 심사까지 한 번에 마치고, 전용 통로로 출국할 수 있다. 2000번째 승객으로 당첨된 전관수(56)씨(사진 가운데)와 티웨이항공(왼쪽), 광명역 관계자(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친구가 되기에 불가능한 나이는 없다



기자 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60대 노인과 20대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지난 1일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영국편이 끝이 났다. 해당편은 시청률 5.8%,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리얼하게 담아낸 이 프로그램은 방송 초반부터 호응이 좋기도 했지만, 특히 영국편에 많은 이들이 열광했다.

영국 친구들은 조합부터 신선했다. 탐

험가 제임스 후퍼의 친구 사이먼, 앤드류, 데이비드 세 명이 방문했다. 흥미로운 건 또래 친구 두명에 아버지뻘 되는데 이비드가 포함돼있다는 것. 연령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을까 우려했지만, 완벽한 기우였다.

데이비드는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앞세워 권위를 부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 놀림감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사이먼, 제임스와 어울렸다.

본인 짐은 스스로 챙겼음은 물론, 식당에 가서는 친구들의 물까지 챙기는 배려심을 보였다.

그렇다고 나이 어린 친구들이 건방지게 행동하거나 무심하게 그를 챙기지 않은 것도 아니다. 겨울산을 오를 때에는 동행하는 친구로서 그의 컨디션을 챙겼고, 형식적이기보다는 늘 진심을 다해 그를 배려했다. 일정을 소화하면서 데이

비드가 무리하지 않는지는 수시로 체크했고, 반면 스키장에서는 오히려 데이비드가 스키를 처음 타는 앤드류에게 알려주는 모습이 그려져 훈훈함을 자아냈다.

부려먹을 사람 '짐꾼'을 따로 두는 tvN '꽃보다 할배'와 상당히 차별되는 지점이었다.

한국사회에서는 어떠한가. 어느 장소에 가서건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모셔야 하지 않는가. 억지스럽고 표면적인 예절 문화보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매너와 배려 문화가 필요한 시대이지 않을까.

60대 노인과 20대 청년들이 친구가 될 수 있던 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배려하며 공존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대차이를 들먹이기 전에 진심으로 소통할 자세가 되었는지를 되돌아 봄야 하겠다.

/tree6834@metroseoul.co.kr

인사

◆ KEB하나은행 ◇ 부장 전보 △ 종합리스크관리부 강재신 △ 글로벌디지털센터 김경호 △ FI사업부 김범근 △ 기업여신심사부 김시훈 △ IT정보개발부 박영범 △ 금융기관영업부 박진홍 △ 기업디지털사업부 박창국 △ 신용감리부 박천수 △ 외환마케팅부 박성욱 △ 빅데이터구축센터 송우식 △ 인재개발부 신은균 △ 투자컨설팅부 심기천 △ 기업문화부 심우창 △ 미래금융전략부 이석 △ 기업개선부 이영준 △ 여신관리부 이원준 △ IT기획부 이일호 △ 중앙영업추진지원부 이정호 △ 호남영업

추진지원부 이태영 △ 여신기획부 이한준 △ 은퇴설계센터 정원기 △ 디지털마케팅부 정운태 △ 외환상품지원부 정종원 △ 고객관리지원부 정진근 △ 사회공헌부 황성훈 △ 셀링 전보 △ 콜라보마케팅 △ 혁신금융플랫폼 변창진 △ 참여형플랫폼 조현준 △ 지점장 겸 RM 전보 △ 과천 권혁소 △ 시화기업센터 김낙근 △ 마포 겸 마포서 김동준 △ 영업부 김선배 △ 두산티워 김장식 △ 남대문 김재영 △ 무교 김정민 △ 을지로6가 김종순 △ 양산 김찬식 △ 공항로 김형수 △ 청담동 남원종 △ 한남동 문성혁 △ 남서울 박민봉 △ 송의동 박민호 △ 강남 역금융센터 박용관 △ 압구정금융센터 박장호 △ 안성금융센터 박재호 △ 평택중앙 박창욱 △ 장안동 박태규 △ 대전금융센터 성병식 △ 역삼중앙 신희만 △ 송탄 양철진 △ 성남공단 오현종 △ 화성병점 유수동 △ 트윈타워 유하윤 △ 구로 윤동환 △ 강남외환센터 이기문 △ SK센터 이남진 △ 경주 이명직 △ 성서공단 이수원 △ 계동 이윤구 △ 역삼역 이재원 △ 반월기업센터 이종찬 △ 서대문 이주희 △ 미동역 이한우 △ 신사역 이현철 △ 성남 장이욱 △ 인천논현 전병우 △ 홍대역 전승욱 △ 서소문 겸 태평로 정양식 △ 도당동 겸 도당중央 조원철

부음

▲ 박상덕씨 별세, 김현종(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정원기(경찰대학장·경감)씨 장모상 = 4일 오전 2시 55분, 전남 진도군 진도읍 산림조합직영추모관 1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031-888-3715(홍보실) 061-543-4040(장례식장)

▲ 정양순씨 별세, 박종록(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총조사단장)씨 장모상 = 3일, 경기 광명시 광명성애병원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7시. 02-2684-4444